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지배형 양육태도와 학업성취도의 구조적 관계

Structural Modeling of an Authoritarian Parenting Style and Academic Achievement among College Students

문선희(Sunhee Moon)*

Department of Consumer and Family Science, Sungkunkwan University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the authoritarian parenting style and academic achievement among college students. Specifically, it is hypothesized that authoritarian parenting would indirectly affect the academic achievement of college students through self-differentiation level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283 college students, after the consideration of their grade and gender, were selected for this study as participants. Methods describing the primary analytical techniqu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ere used for the study.

The results demonstrate that an authoritarian parenting style negatively affected the academic achievement of college students. There are mediation effects of self-differentiation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between the perceived authoritarian parenting style and academic achievement among college students.

The findings imply that the positive development of adult children requires more egalitarian parenting styles than those used on early adolescents. Next, for female students, specialized career counseling programs focusing on reducing psychological career barriers and career stress are needed. Lastly, it is implied that parenting styles used on adult children in Korea may differ from Western styles. Therefore, it may be difficult to expla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and adult children with a traditional theoretical framework.

▲주제어(Key Words) : 지배형 양육태도(authoritarian parenting style), 자기분화(self-differentiation), 진로결정 자기효능감(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학업성취도(academic achievement)

I. 서론

부모가 자녀를 어떤 방식으로 양육하는가에 대한 관심은 오래되고도 매우 흥미있는 연구주제이다. 성장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가족들과의 상호작용, 특히 부모-자녀 관계는 자녀의

성격형성이나 지적발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중요한 변인이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부모의 행동양식을 통하여 사회화를 학습하며 부모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자기의 역할을 인식하기 때문이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심리적·행동적 특성에 관련한 기존의 연구들은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

* Corresponding Author : Sunhee Moon, Department of Consumer and Family Science, Sungkunkwan University, Seoul, 110-745, Korea, Tel: +82-10-4591-3905, E-mail: cafrisun0717@gmail.com

하였는가라는 실제적인 현상이 자녀와 부모가 경험하는 사건과 그들이 처한 상황에 의해 서로 다르게 지각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즉 부모의 실제행동보다 학습자인 자녀에 의해 지각되는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자녀의 행동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녀의 인지적·정의적·행동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때는 자녀가 지각한 양육태도가 보다 더 중요한 변인이라 할 수 있다(Cho, 2008; Schaefer, 1965).

아동기·청소년기와 마찬가지로 부모의 양육태도는 청년기 자녀의 지적·정서적 발달에 여전히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청년기에 부모와의 건전한 애착은 사회적 성취능력, 정서적 적응, 자아존중감, 신체적 건강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Allen, Bell, & Boykin, 1994). 이 시기는 부모-자녀의 관계가 질적으로 변화하는 시기일 뿐만 아니라 진로를 위한 준비의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부모로부터 정신적으로 독립하려는 의지와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태도는 청년기에 접어든 자녀에게 있어서 개인적 성취의 중요한 동기가 될 수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많은 대학생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자신의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 청년기에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중대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를 결정하고 학업이나 직업과 관련하여 미래의 인생을 설계하는 것은 앞으로의 삶의 방향과 질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대학생은 청소년 후기 혹은 초기 성인기에 해당하는 시기로서 중·고등학교 시기인 초기 청소년기와는 달리 정서적·정신적인 면에서는 안정되는 경향이 있다(Nam & You, 2007). 하지만 이 시기는 또한 성인기로의 이행을 준비하는 단계로서 진로의 결정과 동시에 배우자를 선택하는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신념이나 가치의 불확실성 또한 여전히 흔재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때문에 대학생 시기는 모든 영역에서 반드시 부모로부터 완전한 독립과 자율성을 획득하기보다는 부모와 안정된 애착관계를 여전히 유지하는 시기일 수 있다. 즉 진로나 배우자 선택과 같이 의사결정이 어려운 분야에서는 부모로부터 계속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학업성취도간의 관계는 대학생 보다는 주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되어 왔다. 이는 한국 가정과 부모들이 자녀에 대해 갖는 높은 교육적 기대가 중·고등학생에게 집중되어 있으며, 대학에 진학한 후로는 상대적으로 교육에 대한 관심의 정도가 줄어드는 때문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자신의 인생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시기는 대학생이 된 이후라 할 수 있다.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학교를 다니는 동안 입시위주의 교육과

평가 제도에 따라 학습적인 부분에 관심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감을 가지고 진로에 대해 구체적으로 계획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때문에 대학생의 학업성적은 결국 자신이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는 본인의 자아실현과도 직접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진로결정을 위한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또한 최근 언론의 보도에서도 보듯이 대학생 시기의 가장 큰 고민은 장래문제를 포함한 진로 및 직업선택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경향신문, 2012. 10. 5) 대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고민은 더욱 절실하고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때문에 학업성취도와 더불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자신감을 갖는 것은 본인의 능력을 직업과 연결시키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대학생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지배적 양육태도가 그들의 학업성취도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경로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부모의 지배적 양육태도는 남·녀 대학생의 학업성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보다는 개인의 자아분화수준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의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가정한다. 그리고 개인의 자아분화 수준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업성취도 사이를 매개하는지의 여부를 밝히는 것이 두 번째 연구목적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대학에서 진로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담자와 자녀의 진로결정에 조언자로서 참가하는 부모를 위한 효율적이고 적절한 진로지도와 진로상담에 대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자 하는데 연구의 최종 목적이 있다.

II.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1.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학업성취도

부모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자녀를 양육하는 태도는 부모의 개인적인 특성과 환경에 따라 다양하다. Baumrind(1968)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권위형(authoritative), 독재 또는 지배형(authoritarian), 허용형(permissive)으로 범주화하였다. 권위를 나타내는 양육태도의 특징으로 사랑, 통제 대화 등을, 독재 또는 지배형 양육태도는 엄격한 처벌과 자녀와의 분리, 냉담함, 허용적 양육태도는 부모가 신체적,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사랑과 수용적인 태도를 포함하고 있다. Lee and Cho(2004)는 대학생들이 지각하고 있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수용적, 거부적, 자율적, 통제적으로 나누어, 이러한 양육태도가 성취목표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 부모의 양육태도가 수용적이거나 자율적이라고 인식할 때 자신의 진로에 대한 확신이 높아지고, 거부적이거나 통제적이라고 인식할수록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통제적이라고 지각하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들의 학업성취도가 수용적이라고 지각하는 학생들에 비해 더 낮게 나타나는 것보다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Joung, 2002). 즉 엄격하고 지나치게 분리되어 있는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가 자녀와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다. 지나치게 통제적인 부모에게서 양육되는 자녀는 부모와의 의사소통 방식에서도 분리를 경험할 확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듯 한국사회에서 부모-자녀관계와 학업성취도와의 관련성은 아주 밀접한 것으로 밝혀져 왔다. 한국의 학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성취도가 높은 경험은 학업성취도이며(Park, Kim, & Chung, 2004), 이렇게 높은 학업성취 경험을 하는데 가장 큰 도움을 준 사람이며, 미래의 성공을 위해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초·중·고등학생과 대학생 모두 부모라고 생각하고 있었다(Park & Kim, 2000). 이렇듯 부모의 역할과 양육태도는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2. 자아분화 · 진로결정효능감과 학업성취도

청소년 후기에 속하는 대학생들은 개인적 가치와 목표를 설정하고 정체감을 확립해야 하며 동시에 부모로부터의 독립과 함께 직업에 대한 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대학생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취업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적 부조화, 정서적 갈등 및 심리적 부적응 상태를 경험하고 있다. 이렇듯 진로에 대한 고민과 결정은 대학생들에게 가장 절실하고 중요한 문제이며, 진로결정에 대한 연구 및 진로상담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오늘날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하여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고 미래를 준비하려는 한국의 대학생들은 그리 많지 않다. 때문에 한 개인이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얼마나 분리된 사고를 하고 있는지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성취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개인의 자아분화수준이 부모의 양육태도와 대학생의 학업성취를 매개하는 변인중 하나일 것으로 가정하였다. 선행연구들은 학생의 부모의 양육태도가 학생의 자아분화수준과 함께 학습능력에도 관련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다(Kim 2009; Kim, 2012; Lee, 2001). 또한 Lim, Lee and Eo(2012)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기주도적 학업성취능력에 직접적인 효과를 보이지 않지만 청소년의 자아분화수준에 의해 매개되는 효과가 있음을 밝혀내었다. 후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대학생 시기는 자아정체감의 혼란을 통해서 스스로의 가치관을

확립하고 성인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배우는 시기로 정의되고 있으나(Erickson, 1967; Song, 2006 재인용), 동시에 사회속에서 자신의 독립적인 역할과 직업을 탐색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Chung(1993)의 연구는 후기 청소년기를 부모로부터 독립된 성인으로서의 역할을 시작하는 시기로 정의하고 독립심이 더 많은 대학생일수록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할 것을 예측하였으나 전혀 다른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즉 부모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부모와 비슷하고 부모로부터 도움과 조언을 많이 받고 있는 대학생일수록 학교생활에 더 적극적으로 적응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곧 한국의 대학생들이 부모로부터 독립된 개체로서 성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보다는 학업을 비롯한 학교생활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여전히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 개인의 자아분화는 부모를 비롯한 주변의 의미있는 타인들로부터 독립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의 수준을 의미한다. 결국 스스로 성취해 내는 학업정도에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음을 추론할 수 있으며 동시에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개인의 반응과도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사고와 정서가 분리되지 않아 부모와 융합의 정도가 높은 사람은 이성적 사고가 아닌 감정을 토대로 하여 반응하고 의사결정을 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부모의 양육태도가 어떤가에 따라서 감정적으로 혼란스러운 반응을 보일 수 있다. 동시에 이러한 감정적 반응은 개인의 성취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설정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학업성취도를 매개하는 두 번째 중요한 변인은 진로결정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가정하고 있다. Hackett and Betz(1981)는 자기효능감이 인간행위와 관련된 다양한 심리적 변인을 설명하고 예측하는데 유용하다는 사실에 관심을 가지고 자기효능감 이론을 진로와 직업분야에 적용하였다. 진로선택과 적응에 관련되는 개인적 효능감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으로 개념화 되었으며, 진로결정과 학업성취, 진로결정 의사 및 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설명되고 있다. 즉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행동의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 자기효능감을 토대로 하여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행동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에서 출발한다(Kim & Bae, 1998). Lee and Cho(2004)는 대학생 자녀들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성취목표와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통제적이라고 지각할수록 자신의 진로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며 진로를 결정하기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성취목표 또한 낮았다. 부모-자녀 관계와 자기효능감이 대학생의 적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한 연구(Choi, 2001)에 의하면, 대학생 적응요인중 하위요인인 학업적 적응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밝혀낸 바 있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학업적 적응의 관련성을 연구한 Chartrand et

al.(1992)은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더 좋은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 학업수행에 더 적극적인 뿐만 아니라 학업동기 또한 높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 즉,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학업성취의 예측변인임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자기효능감과 학업적 동기가 높을수록 더 좋은 학점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기효능감이 학업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Zhicheng & Stephen, 1999).

한편 부모와의 관계는 성별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은 성역할 사회화와 관련한 문화적 풍토에 따라 다르게 발달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의 발달성취도는 성별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컨대, 전통적인 성역할 이론에 의하면 여성은 애착적인 성향이 강하며 남성은 자율적 성향을 가지는 것으로 개념화되고 있다(Chodorow, 1978). 성역할에 대한 이러한 이분법적 개념화는 현대사회에 들어와 점차 쇠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별에 의한 부모-자녀간의 전통적인 의사소통방식이 여전히 남아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성별에 따라 부모의 양육태도가 어떠한 차이를 만드는지를 규명하는 것은 의미있는 시도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모의 지배적인 양육태도가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경로과정을 남·여 대학생으로 구분하여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학생이 지각하고 있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기분화 수준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경로를 통해 학업성취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구조화된 설문지조사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조사의 표집은 2012년 9월과 10월에 걸쳐 서울지역 4년제 남녀공학 대학 두 곳에 다니는 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참여자의 성별과 학년분포를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설문지의 회수 결과 불성실하게 기재된 17부를 제외한 283부의 설문지가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 283명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Table 1>에 정리되어 있다. 성별은 남학생이 58%, 여학생이 42%로 나타났으며 2학년의 비율이 36.1%로 가장 높고 1학년이 1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부모님의 교육수준은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대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70% 이상의 대학생이 자신의 가정경제상태를 중간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Variables	Frequency(%)
Gender	
Male	164(58%)
Female	119(42%)
Grade	
Freshman	48(17%)
Sophomore	102(36.1%)
Junior	54(19%)
Senior	79(27.9%)
Parent' education(Father/Mother)	
Below middle school	21(7.4%)/23(8.1%)
High school	87(30.8%)/121(42.8%)
College	26(9.3%)/19(6.8%)
University	92(32.5%)/100(35.3%)
Above graduate school	57(20.1%)/20(7.1%)
Economic status	
High	36(12.7%)
Middle	202(71.4%)
Low	45(15.9%)

2. 측정도구

먼저 본 연구에서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를 조사하기 위한 평가도구로 양육스타일 척도(PSDQ: Parenting style and Dimensions Questionnaire)를 사용하였다. Baumrind(1967)의 세 가지 양육태도인 권위형(Authoritative), 지배형(Authoritarian), 방임형(Permissive)을 기초로 3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PSDQ는, 고인숙 외 3명이 한국의 상황에 맞추어 31문항으로 수정·변안한 것이다(Lee, Ko, & Shim, 2009). 본 연구에서는 양육스타일 하위 척도 중 하나인 지배형 양육태도에 대한 척도를 선택하여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신뢰도는 .794이었다. 지배형 양육태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적, 언어적 위협과 비합리적인 처벌의 양육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두 번째 변인인 자아분화 척도는 Je(1989)에 의해 고안된 것으로 각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상 반대의 의미를 가지는 항목은 역코딩한 뒤 각 항목을 합산한 변수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분화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자아분화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777로 계산되었다.

세 번째 변인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Taylor and Betz(1983)가 개발한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단축형(CDMSES-SF)을 Lee (2000)가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CDMSES-SF는 효과적인 진로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과제들에 대해 이를 완수할 수 있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리커트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별로 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조금 그렇다, 5=아주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25개의 과제에 대한 자신감 정도를 4개의 하위영역으로 분류하였다. 각 하위 영역에 대한 신뢰도 계수는 목표선택 .856, 직업정보 .803, 문제해결능력 .692, 미래에 대한 계획 .742로 나타났다. 전체 25개 항목에 대한 신

뢰도 계수는 .921이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대한 자신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한편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대학생의 학업성취도 변인은 지난 학기에 받은 학점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학업성취도 변인과 관련하여 자기주도학습능력이나 성취동기와 같은 간접적인 학업성취능력이 아닌 성적을 직접적으로 이용한 연구는 그다지 많이 수행되고 있지 않다.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업성취도에 관련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기인하고 있다. 하지만 몇몇 연구들(Cho & Lee, 2006; Tac, Park, & Kim, 2006)에서 본인의 학점을 이용하여 학업성취와 관련변인들과의 관계를 탐색하고 있다. 특히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과 같은 자신의 진로결과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는 변인으로서 학점을 종속변인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기존연구와 맥락을 같이하여 연구의 종속변인으로서 학점을 사용하여 학업성취도를 측정하였다.

3. 연구모형과 분석방법

본 연구는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자아분화 수준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변인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추정하였다. 각 변인들간의 관계는 <Figure 1>의 연구모형에 나타나 있다. 이 연구모형에 기초하여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되었다. 첫째, 남·녀 대학생이 지각하고 있는 부모의 지배적 양육태도는 그들의 학업성취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둘째, 자아분화 수준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남·녀 대학생이 지각하고 있는 부모의 지배적 양육태도와 학업성취도간을 매개하는 효과가 있는가?

분석에 사용될 잠재변인들이 연구모형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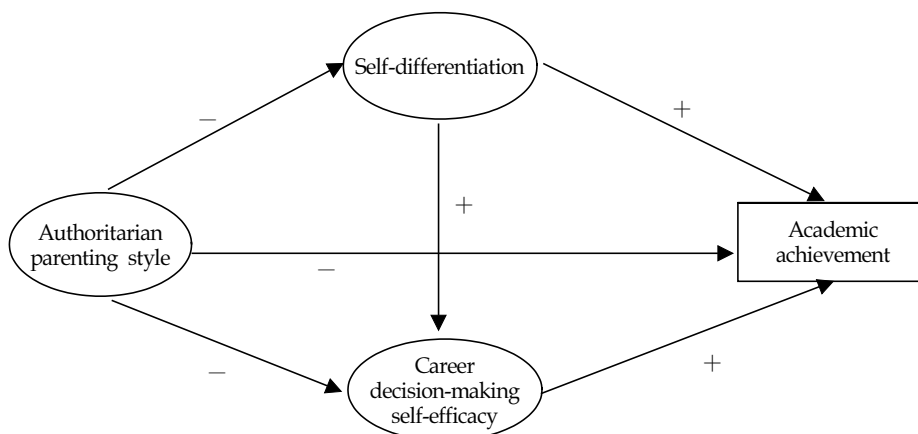


Figure 1. Conceptual Framework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에 앞서 36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자아분화 수준 변인을 하위 항목으로 군집화하기 위한 문항 분할(Item parceling)을 요인분석을 통해 실시하였다. 문항 분할의 결과 자아분화 수준 변인은 요인점수에 따라 다섯 개의 하위항목으로 그룹을 나누었으며 이를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한 하위변인으로 사용하였다. 지배형 양육태도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변인은 이미 항목의 내용에 따라 그룹화 되어 있었기 때문에 문항분할의 과정이 없이 하위변인으로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해 사용되었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잠재변수에 사용된 하위변인의 요인계수를 통해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한 후 이를 구조모형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잠재변인 간 경로계수를 산출하였다. 한편 자아분화 수준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변인이 지각된 지배형 양육태도와 학업성취도 사이에서 매개효과를 가지는지를 알아보고자 붓스트랩 검증을 실시하여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과 AMOS 7.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잠재변인들의 상관관계

제시된 경로모델의 인과관계를 추론하기 전에 잠재변인들간의 관련성을 밝혀 구조모형 설정의 이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잠재변인인 지배형 양육태도와 대학생이 느끼는 자아분화 수준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그리고 종속변인인 학업성취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Table 2>에 제시되어 있는 결과를 보면 진로결정 효능감과 지배형 양육태도간의 상관관계를 제외한 다른 변인들은 서로 높은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다. 대학생이 인지하는 부모의 지배형 양육태도는 학업성취도와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며($r = -.248, p < .001$), 자아분화 수준과 진로결정 효능감은 각각 정의 상관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r = .336, p < .001$; $r = .262, p < .001$). 즉 부모가 지배형 양육태도를 가지고 있을수록 대학생의 학업성취도는 낮게 나타났으며, 자아분화의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 결정에 대한 자신감이 높을수록 학업성취도는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측정모형으로부터 얻어진 잠재변인들의 상관성이 구조모형에서 변인들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데 타당성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연구모형 검증

먼저 분석을 위해 설정된 잠재변수들이 연구모형에 사용하기에 적합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자아분화수준의 하위변인 한 개를 제외한 다른 잠재변수들의 하위변인들의 요인값은 모두 .3 이상으로 연구모형의 변인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함을 보여주었다(Kline, 2005). 모형의 수정결과 $\chi^2=41.905(26)$, GFI=.974, CFI=.989, NFI=.973, TLI=.977, RMSEA=.047으로 본 연구를 위한 구조모형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함을 보여주었다.

다음 단계로서 지배형 양육태도와 대학생의 학업성취도간의 경로를 분석하고 자아분화수준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밝히기 위해 연구모형을 이용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남학생의 구조모형분석의 결과는 <Table 3>, <Table 4>와 <Figure 2>에 제시되어 있다. 기본 구조모형의 모델핏이 모형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으므로 구조방정식 이론에 따른 모형의 수정 후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았다. 모형의 수정결과 GFI는 .969, CFI는 .995, NFI는 .974, TLI는 .988로서 모두 .95이상의 값을 가지고 있으며 RMSEA는 .038로서 .5 이하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대체로 만족스러운 수준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는 모형이 자료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수정모형을 최종적으로 선택하였다. 지배형 양육방식과 학업성취도간의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지배형

Table 2. Correlations between Latent and Dependent Variables

	1	2	3	4
1. Authoritarian parenting style	—			
2. Self-differentiation	-.378***	—		
3.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027	.408***	—	
4. Academic achievement	-.248***	.336***	.262***	—
Mean	2.435	3.396	3.493	3.553
(SD)	(.527)	(.305)	(.513)	(.549)

*** $p < .001$

Table 3. Model Fit Statistics (Male Student)

	$\chi^2(df)$	GFI	CFI	NFI	TLI	RMSEA
Base Model	302.150(39)	.785	.750	.727	.647	.203
Revised Model	28.463(33)	.969	.995	.974	.988	.038

Table 4. Standardized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for All Variables (Male Student)

Path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Authoritarian parenting style → Self-differentiation	-.581***	-	-.581
Self-differentiation →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743***	-	.743
Authoritarian parenting style →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177	-.431**	-.254
Self-differentiation → Academic achievement	.285	.222**	.407
Authoritarian parenting style → Academic achievement	.002	-.183	-.181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 Academic achievement	.299**	-	.299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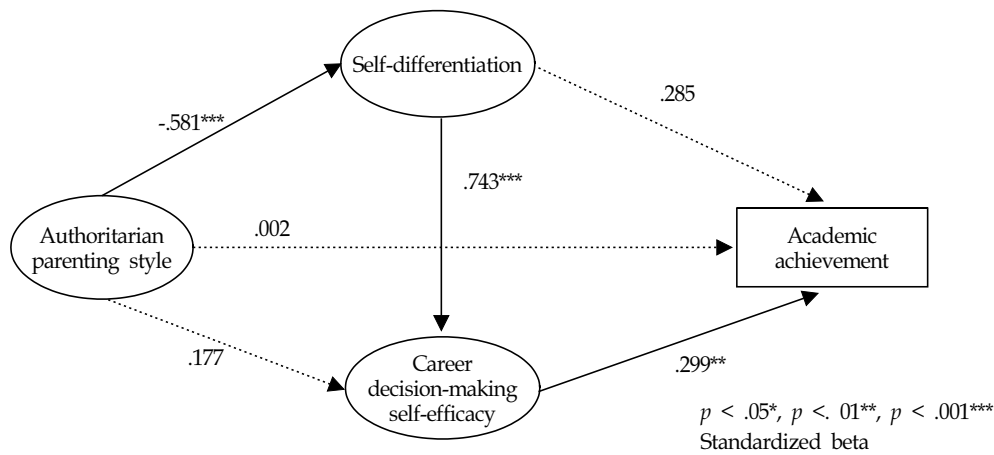


Figure 2. Path Model for Authoritarian Parenting Style, Self-differentiati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Academic Achievement (Male Student)

양육태도는 자아분화수준에 대해 $-.581(p < .001)$, 자아분화수준은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에 대해 $.743(p < .00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학업성취도에 대해 $.299(p < .01)$ 로 나타났다. 즉 남학생들이 부모의 양육태도를 지배형으로 지각할수록 자아분화수준은 낮았으며, 자아분화수준이 높을수록 진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자신감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 대한 자신감이 높을수록 궁극적으로 학업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배형 양육태도가 자아분화수준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통해 학업성취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부스트랩 검증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부스트랩 검증결과 자아분화수준이 학업성

취도에 미치는 표준화 간접효과는 $.222(p < .01)$, 지배형 양육방식이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표준화 간접효과는 $-.431(p < .01)$ 로서 유의수준 95%에서 통계적 유의미성이 확인되었다(<Table 4>). 즉 부모의 양육태도를 지배형으로 인식할 때 남자 대학생의 자아분화수준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통하여 학업성취도에 간접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아분화수준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변인의 매개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여학생의 구조모형분석의 결과는 <Table 5>, <Table 6>과 <Figure 3>에 제시되어 있다. 구조방정식 이론에 따른 모형 수정 후 적합도 지수는 GFI는 .983, CFI는 .936, NFI는

Table 5. Model Fit Statistics (Female Student)

	$\chi^2(df)$	GFI	CFI	NFI	TLI	RMSEA
Base Model	79.194(39)	.893	.931	.875	.902	.093
Revised Model	46.008(36)	.983	.936	.928	.974	.049

Table 6. Standardized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for All Variables (Female Student)

Path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Authoritarian parenting style → Self-differentiation	-.560***	-	-.560
Self-differentiation →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626***	-	.626
Authoritarian parenting style →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398**	-.351*	.047
Self-differentiation → Academic achievement	.029	.139	.169
Authoritarian parenting style → Academic achievement	-.416**	-.006	-.422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 Academic achievement	.223*	-	.223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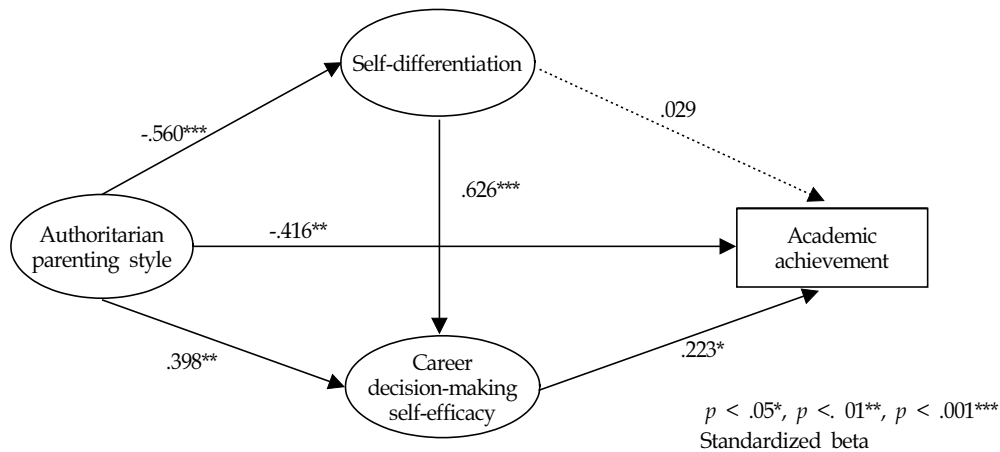


Figure 3. Path Model for Authoritarian Parenting Style, Self-differentiati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Academic Achievement (Female Student)

.928, TLI는 .974로서 모두 .90~1의 범위에서 값을 가지고 있으며 RMSEA는 .042로서 대체로 만족스러운 수준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는 설정된 구조모형이 자료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수정된 모형을 최종적으로 선택하였다. 구체적인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여학생의 경우 지배형 양육태도는 자아분화수준에 $-.560(p < .001)$, 학업성취도에 $-.416(p < .0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398(p < .01)$, 자아분화수준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626(p < .00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학업성취도에 대하여 $.223(p < .05)$ 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들이 부모의 양육태도를 지배형으로 인식할수록 자아분화수준과 학업성취도는 낮았으나 진로결정에 대한 자신감은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아분화수준이 높을

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궁극적으로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여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지배형 양육태도가 자아분화수준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통해 학업성취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بوت스트랩 검증결과, <Table 6>에 제시되어 있듯이 지배형 양육방식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표준화 간접효과는 $-.351(p < .05)$ 로서 유의수준 95%에서 통계적 유의미성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Figure 3>에서 볼 수 있듯이 여학생이 인식하고 있는 지배형 양육태도가 학업성취도에 직접적으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beta = -.416, p < .01$) 본 연구의 가설로서 설정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변인의 매개효과는 남학생보다는

작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남학생과는 달리 여학생의 경우 부모의 양육태도를 지배형으로 더 인식할수록 현재의 학업성취도는 낮게 나타났으며, 부모의 양육태도를 지배형으로 인식하고 있더라도 진로를 결정하는데 대한 자신감이 높은 여학생은 학업성취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이 지각하고 있는 부모의 지배적 양육태도와 학업성취도간의 구조적인 관계를 탐색하고, 자아분화 수준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283명의 남·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부모의 양육태도를 지배적이고 권위적으로 인식할 때 대학생의 학업 성취도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남학생의 경우 자아분화수준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변인에 의해 매개되는 경로를 보여주었다. 여학생의 경우 부모의 양육태도를 지배적으로 인식할수록 학업성취도에 직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었으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매개변인으로서 전체 경로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논의점과 추후 연구방향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통제적이고 권위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의 발달시기에 따라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사회에서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는 극심한 교육열과 한국의 전통적인 자녀양육방식의 결합으로 인해 자녀를 통제하는 경향이 강하며 권위적인 양육태도를 견지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지배적 양육태도는 청소년기에 있는 자녀의 학업성취를 일시적으로 높일 수는 있으나(Park & Kim, 2000; 2003), 초기 성인기에 접어든 대학생에게는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지배적 양육태도는 원론적으로 자녀를 통제하고 엄격한 양육방식을 취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겉으로 꼭 엄격한 태도를 보여주지 않더라도 부모의 의견을 강제하고 부모의 의도대로 자녀의 생활이나 생각을 조절하려는 것도 지배적 양육태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미 성인진입기에 접어든 대학생에 대한 지배적 양육태도는 효과적인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을 방해하며 개인적 성취에 역기능적으로 반응하게 될 것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성인자녀의 긍정적 발달을 위해 수평적 양육태도를 통한 부모-자녀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부모의 지배적인 양육태도가 여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결과는 같은 발달시기를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자녀간의 관계에서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더 독립적인 경향이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성역할의 개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미래의 진로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진로설정에 대한 인식이 다를 수 있음을 의

미한다.

실제로 여대생들이 경험하는 진로스트레스와 진로장벽이 남학생의 경우와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기존의 연구결과(Lim & Jeon, 2004)와 일치함으로써 진로결정에 대한 성별의 차이를 확인시켜주고 있다. 또한 여학생의 경우, 진로설정과 관련한 준비과정이 단순히 여성 자신만의 노력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기 보다는 그 시대의 사회문화적인 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예컨대, 여대생들은 자신의 진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여성취업에 대한 사회적인 고정관념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고정관념은 대개 그들이 속한 사회속에서 생산되는 것으로서 성역할 고정관념, 직장과 가정생활의 병행, 여성의 능력에 대한 사회의 시선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사회적 요인들이 진로결정의 인식에 영향을 주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진로장벽 자체보다는 여대생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할 수 있다(Lee & Yu, 2009). 이러한 사실은 여학생의 진로상담과 관련한 접근은 남학생의 진로상담과는 차별화되어야 할 이유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여성들이 감지하는 심리적인 진로장벽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고 진로탐색을 위한 적극적인 동기부여를 위한 상담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시도는 대학에서 효과적인 진로상담을 위해 더욱 중요하다. 대학차원에서 시행할 수 있는 내적 통제력과 자기자신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둔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은 자기효능감과 자율성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남학생에게는 자아분화 수준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여학생에게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애정과 자율적인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분화와 정적인 관련성을 가지며 지나치게 통제적인 양육태도와 부적 상관에 있다고 밝힌 Cho(2008)의 연구결과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개인의 자아분화 수준은 학업성취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역할을 하는 변인이 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대학생에게 있어서 학업성취도는 자신의 진로를 설계하는 것보다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정서적 성숙도를 향상시키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을 위한 진로상담에서 꼭 필요한 분야로서 자아분화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확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자아분화수준의 지속적인 향상은 동시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높이는데 일조할 것이다. 하지만 가정이나 사회에서 요구하는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성인의 역할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대학생들의 현실, 불투명한 취업시장으로 인해 그들이 느끼는 불안감 등을 고려할 때 진로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수준이 높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때문에 현재 한국의 대학생들이 처한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고 진로결정 효능감을 높이는 교육프로그램과 함께

그들을 실제적으로 도울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학생에 해당하는 시기가 후기 청소년기 혹은 성인진입기에 해당하며 자율과 심리적인 독립성이 형성되는 시기로 규정되고 있는 전통적 견해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여학생들은 여전히 부모의 직접적인 통제와 간섭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즉 부모의 통제적인 양육태도는 성인기에 접어든 자녀가 독립적인 사고를 발전시키고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부모가 자녀와 관계맺는 방식이 서구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을 수 있으며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또한 기존의 이론적 틀에 맞추어 해석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동안 아동·청소년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의 관심이 적었던 성인진입기에 접어든 자녀의 발달과 부모의 양육태도와의 관련성에 대한 보다 심도깊은 연구의 축적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성인 초기인 대학생을 위한 양육스타일 척도의 개발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추어 수정·개발된 양육스타일 척도는 대부분 아동기부터 후기 청소년기까지를 모두 포함하여 개발된 것으로서 구체적인 시기의 구분없이 많은 연구에 사용되어 왔으며 본 연구 또한 이와 같은 척도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본 연구가 가진 한계로 작용하고 있으며 후속연구에서는 성인자녀를 위한 양육스타일 척도를 개발하여 연구에 이용한다면 보다 차별화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REFERENCES

- The Kyunghyang Shinmun. (2012.10.5). "The biggest concern is employment"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0052151515&code=910110
- Allen, J. P., Bell, K. L., & Boykin, K. A. (1994). *Autonomy and relatedness in adolescent-mother interactions and social functioning with peers*.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on Adolescence. San Diego, CA.
- Baumrind, D. (1968). Parental disciplinary patterns and social competence in children. *Youth & Society*, 9(3), 239-176.
- Chartrand, J. M., Rose, M. L., Marmarosh, C., & Caldwell, S. (1992). Peeling back the onion: personality, problem solving, and career decision-making style correlates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1), 66-82.
- Chodorow, N. (1978). *Psychoanalysis and sociology of gender*.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erkely: CA.
- Cho, S. (2008). *The effect of family-origin dynamics on conflict management style of an adult person in the organization: The mediation effect of self-differentiation*.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Bucheon.
- Cho, S. & Lee, S. (2006). Effect of the career decision-making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on the Korean adult colleges' educational attainment.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19(1), 127-140.
- Choi, E. (2001). *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security and adjustment to college: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general self-efficacy*.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Chung, E. (1993). *A Correlational study of college students' independence from parents and their adaptation to college life*. Yonsei University, Seoul.
- Erikson, E. H. (1967). *Childhood and society*, W. W. Norton & Co.: NY.
- Hackette, G. & Betz, N. E. (1981). A self-efficacy approach to the career development of women. *Journal of Theoretical Behavior*. 18, 326-339.
- Je, S. (1989). *The relationship between differentiation of self and dysfunctional behavior: Based on Bowen's Family system theory*. P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 Joung, G. (2002). *The relationship among self-efficacy, achievement motivation, academic achievement and parent-child relationship: A longitudinal analysis*. Inha University, Incheon.
- Kim, N. & Bae, J. (1998). Theoretical investigation on career self-efficacy. *Secondary Education Research*, 10, 377-400.
- Kim, J. (2012). *A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parenting styles with self-differentiation and self-esteem perceived by college students: Focused on christian and non-christian college students*. Soongsil University, Seoul.
- Kim, M. (2009). *The Influences of parents' fostering attitude and adolescents' self-differentiation and school adjustment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Kyung-Nam University, Changwon.
- Kline, R. B. (200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Guilford Press. New York: NY.

- Lee, E. (2000). *A Study on the effect of self-efficacy upon the career development*.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Lee, E. (2001). *A study on the level of self-division an parents' nursing attitudes perceived by young people*. Dong-A University, Busan.
- Lee, H. & Cho, H. (2004). The effect of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 on achievement goal and career decision: Research on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6(1), 89-105.
- Lee, S., Ko, I., & Shim, J. (2009). The study of parent's and grandparents' parenting style and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4(2), 111-134.
- Lim, S. & Jeon, H. (2004). The transition to the world of work and career barriers of women college students: A case of local university.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14(1), 101-120.
- Lim, S., Lee, Y., & Eo, S. (2012). The relations of parenting attitudes to adolescents'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with self-differentiation as a mediator.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9(1), 69-87.
- Nam, S. & You, Y. (2007). The effects of parenting behaviors perceived by parents and children and college students' self differentiation on their interpersonal problems.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2(2), 51-75.
- Park, Y. & Kim, U. (2000). The impact of the changing parent-child relationship on adolescents' functioning: Comparison of primary, junior high, senior high and university students. *The Journal of Education Research*, 38(2), 109-146.
- Park, Y. & Kim, U. (2003). The influence of parent-child relationship on achievement motiva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among Korean adolescents: Indigenous psychological analysi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0(1), 139-169.
- Park, Y., Kim, U., & Chung, K. (2004). Longitudinal analysis of the influence of parent-child relationship on adolescents' academic achievement: With specific focus on the mediating role of self-efficacy and achievement motivation. *Kor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nd Social Issues*, 10(3), 37-59.
- Schaefer, E. S. (1965). Children's reports of parental behavior: An inventory. *Child Development*. 36(2), 413-424.
- Song, M. (2006). *Developmental psychology*. Hak-Ji: Seoul.
- Tac, S., Park, Y., & Kim, U. (2006). Factors influencing academic achievement of university students: With specific focus on parent-child relationship, self-efficacy, achievement motivation and hours studied.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16(1), 143-154.
- Taylor, K. M. & Betz, N. E. (1983).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1), 63-81.
- Zhicheng, Z. & Stephen, R. R. (1999). *Freshman academic achievement: a structural equation model*.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Montreal, Quebec, Canada, April 19-23.

- 접수일 : 2013년 07월 15일
 심사일 : 2013년 07월 28일
 게재확정일 : 2013년 09월 11일